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 관세율 및 수출성과: FTA 체결국과의 비교

方 浩 慶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원

bassgu@kiep.go.kr

본고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와 FTA 비체결국이면서 미국수입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관세율 격차 및 최근의 무역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FTA 체결 국가 및 비체결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에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각각 0.03%, 0.04% 및 0.75%를 보이는 반면 비체결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에게는 2.9%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 대상국의 수출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수입시장에서 주요 산업별 수입비중의 추이 및 1위 및 1~5위 품목의 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2004년 현재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총수입의 17.3%를 차지하는 2,597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13.8%인 2,105억 달러, 멕시코는 10.4%인 1,578억 달러, 일본은 8.7%인 1,333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1%에 해당하는 478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며 아울러 한국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무역흑자를 시현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미 수출 비중의 빠른 감소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의 감소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등의 후발개도국들이 낮은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미국의 FTA 체결국과의 관세율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미국,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생산비용의 감소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ASEAN 또는 중국 등으로 진출하여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이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생산활동의 글로벌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최근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무역상대국의 FTA 체결에 따라 특혜 관세를 누리기 위해 자국기업을 FTA 체결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FTA 결과로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비체결국의 수출품목이 체결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관계를 보이기 때문인데 그 결과 역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의 FTA 체결국 및 역외국들에게 부과하는 단순 평균 실행관세율과 관세구조를 살펴본 후 미국시장에서의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의 주요 산업별 수입비중 및 품목별 국가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2. 미국 시장에서의 FTA 체결국 및 한·중·일 관세율 현황

가.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미국의 대세계 수입 총 품목수(HS 6단위)는 5,174개로써 이 중 미국의 FTA 체결 국가 및 비체결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 등에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각각 0.03%, 0.04% 및 0.75%를 보이는 반면 비체결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에게는 2.9%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최대값은 54.6%로써 HS 120210(탈각하지 않은 낙화생)에 부과되고 있고, 멕시코와 싱가포르는 신발류로 분류되는 HS

640110¹⁾, 640191²⁾에 각각 10.0% 및 33.7%의 최대 관세율이 부과된다. 미국과의 FTA 비체결국인 한·중·일 3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최대값은 59.6%로써 캐나다와 동일한 HS 120210(탈각하지 않은 낙화생)이 여기에 속한다. 그 결과 캐나다가 멕시코보다 평균 관세율이 낮게 부과되고 있지만 각 품목의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의 경우 캐나다가 1.1을 나타내어 멕시코의 0.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의 표준편차가 2.2를 나타내어 품목별 관세 격차가 캐나다 및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FTA 비체결국인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표준편차는 4.4를 보였다.

<표-1>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및 FTA 체결국의 평균관세율 (2004년)
(단위: %)

		평균관세율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FTA 체결국	캐나다	0.03	0	54.6	1.1
	멕시코	0.04	0	10.0	0.4
	싱가포르	0.75	0	33.7	2.2
FTA 비체결국	한·중·일 등	2.94	0	59.6	4.4

나. 주요국의 대미 시장에서의 관세구조

미국의 주요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에 부과되는 특별 관세율과 비체결국가인 한·중·일 3국의 MFN 실행관세율간에 부과 범위별 품목수의 비중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관세부과 범위별 수입액 비중도 체결국과 비체결국사이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FTA 체결국가인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에 부과되는 관세품

1) 보호용 금속 토깽을 넣은 방수 신발

2) 무릎은 덮는 방수 신발

목에서 무관세화 품목의 비중은 각각 99.5%, 98.8% 및 8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비체결국가인 한·중·일 3국은 43.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의 대미국 총수출액에서 무관세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9.3%, 99.4% 및 87.2%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 중국 및 일본은 39.9%, 48.7% 및 28.8%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4%대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10%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수출비중이 15.5%를 차지하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중에서 10%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256개로써 섬유산업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한편 전자산업으로 분류되는 텔레비전용 음극선관(HS 854011)의 경우 12.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동일 품목에 무관세화가 되어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0.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표-2> 미국의 주요 대상국별 관세구조 및 수입비중 (2004년)

(단위: %)

관세율		0	0<T≤2	2<T≤4	4<T≤6	6<T≤10	10>T
품목 비중	캐나다	99.5	0.3	0.1	0.0	0.0	0.1
	멕시코	98.8	0.4	0.4	0.3	0.1	0.0
	싱가포르	83.1	3.2	5.6	5.4	1.6	1.1
	한·중·일	43.9	9.4	18.2	12.2	9.0	7.3
수입 비중	캐나다	99.3	0.7	0.0	0.0	0.0	0.0
	멕시코	99.4	0.3	0.2	0.1	0.0	0.0
	싱가포르	87.2	1.3	4.1	7.4	0.0	0.0
	한국	39.9	6.4	31.9	3.8	2.5	15.5
	중국	48.7	10.3	13.1	10.2	9.8	7.9
	일본	28.8	22.6	39.3	4.6	0.9	3.8

주: 1) HS 국제공용기준이 6단위이므로 8단위의 관세를 6단위로 단순평균한 후 품목수와 수입액을 구하였음.

3. 대미시장에서의 FTA 체결국 및 한·중·일 수출 성과 비교

가. 미국의 주요 산업별 수입 비중

본 절에서는 미국의 FTA 체결국 및 비체결국인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1994년과 2004년을 대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산업별 수입 비중을 살펴본다.

<표-3>은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와 FTA 비체결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산업별 수입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NAFTA가 공식적으로 출범된 1994년에 미국이 회원국인 캐나다 및 멕시코에 부과한 주요 산업별 특혜관세율은 캐나다에 대해 농산물 2.2%, 수산물 0.9%, 섬유 3.5%, 석유화학 0.2%, 철강 1.4%, 일반기계 0.1%, 전자 0.4%, 자동차 0.8%가 각각 부과되었고 멕시코에는 농산물 1.2%, 수산물 1.2%, 섬유 6.7%, 석유화학 1.1%, 철강 2.8%, 일반기계 0.2%, 전자 0.1%, 자동차에 1.1%의 특혜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반면 FTA 비체결국가에는 농산물 8.5%, 수산물 3.5%, 섬유 11.0%, 석유화학 5.6%, 철강 4.4%, 일반기계 2.9%, 전자 4.1%, 자동차에 3.6%가 부과되었다. 그 결과 <표-3>을 보면 1994년 현재 미국 수입시장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관세격차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철강 등에서 현저한 수입비중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의 경우 역내국인 캐나다(3.5%)와 멕시코(6.7%)보다 관세격차가 비교적 큰 11.0%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지만 1994년 현재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보다 높은 14.3%의 비중을 보였다.

미국은 2004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특혜 관세율을 거의 모든 품목에서 무관세화로 만들었으며 한편 이 시기에 발표된 싱가포르에 대한 특혜 관세율은 농산물 1.2%, 수산물 0.4%, 섬유 0.0%, 석유화학 2.1%, 철강 0.3%, 일반기계 0.1%, 전자 0.2%, 자동차에 2.1%가 적용되었다. 반면 비체결국가에

는 농산물 7.7%, 수산물 1.4%, 섬유 8.7%, 석유화학 3.7%, 철강 0.7%, 일반기계 1.3%, 전자 1.8%, 자동차에 3.3% 등으로 199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품목이 인하되었지만 FTA 체결국에 비해 섬유,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가에 비해 관세격차가 여전히 크다.

2004년 현재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산업별 수입 비중을 보면 1994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FTA 비체결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특혜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농산물의 경우 10.9%에서 13.7%로 섬유는 5.2%에서 9.5%, 자동차가 7.3%에서 13.5%로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철강(5.6%에서 9.6%), 일반기계(5.0%에서 9.6%) 및 전자(15.0%에서 20.0%)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 절에서는 미국의 품목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위 품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3>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산업별 수입 비중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1994	2004	1994	2004	1994	2004
농산물	19.6	20.5	10.9	13.7	0.2	0.1
수산물	16.4	18.6	4.9	3.8	1.1	0.4
섬유	3.5	3.9	5.2	9.5	1.1	0.3
석유화학	17.4	17.4	3.4	3.6	2.3	2.6
철강	18.4	16.4	5.6	9.6	0.1	0.1
일반기계	10.7	8.9	5.0	9.6	8.6	3.7
전자	6.1	5.1	15.0	20.0	3.9	1.5
자동차	38.9	30.6	7.3	13.5	0.0	0.0
	한국		중국		일본	
	1994	2004	1994	2004	1994	2004
농산물	0.3	0.4	1.6	3.1	0.9	0.7
수산물	1.2	0.6	3.8	10.6	2.2	1.2
섬유	6.0	3.4	14.3	17.5	1.8	1.0
석유화학	1.8	1.8	6.9	10.3	14.6	8.2
철강	4.5	3.7	2.6	14.0	14.3	5.0

일반기계	3.0	3.3	2.3	21.7	29.4	14.4
전자	7.6	9.1	7.0	22.5	27.7	11.9
자동차	1.7	5.7	0.5	1.9	35.9	24.1

자료: UNCTAD [Online].

나. 미국 시장에서 FTA 체결국 및 한·중·일의 1위 품목 개수

본 절에서는 미국의 FTA 체결국 및 한·중·일 3국의 1위 품목 개수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SITC Rev 2를 사용하기로 한다.³⁾ HS 품목 분류를 사용할 경우 1992년 이전의 무역자료를 구할 수 없는 반면 SITC의 경우 그 이전의 자료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표-4>는 미국의 품목별 수입액을 기준으로 미국시장에서 FTA 체결국 및 한·중·일의 1위 품목 개수를 나타낸 표이다.

캐나다는 1986년에 1위 품목이 222개이었지만 NAFTA 협정이 체결된 1994년에는 1986년에 비해 59%가 증가한 353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6년에 미국시장에서의 1위 품목이 393개로 증가한 이후 2000년에는 375개, 2004년에는 325개로 감소하였다. 1~5위 품목의 개수도 1986년에는 596개이었으나 1996년에는 810개로 증가한 이후 2000년에 787개, 2004년에는 769개로 감소하여 1996년에 비해 17% 감소하였다.

멕시코는 1986년에 미국시장에서의 1위 품목이 45개이었으나 1990년에 70개로 증가한 이후 1996년에는 90개, 2000년에는 115개로 빠르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위 품목 수가 101개로 2000년에 비해 12% 감소하였다. 1위~5위 품목도 1986년에는 231개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30개를 기록하였고 2004년에는 7.4% 감소한 491개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의 1986년에 1위 품목이 2개를 기록한 이후 1990년에 4개로 증가하였고, NAFTA가 체결된 1994년에는 1개로 감소한 이후 1996년에는 1위 품목이 한개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3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미-싱 FTA가 체결된 2004년에는 1위 품목 개수가 2000년과 비교하여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1~5위 품목의 수가 2000년의 19개에서 2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HS 품목 분류를 사용할 경우 총 품목수는 5,222개가 되지만 SITC Rev 2의 경우 1,366개가 된다.

한국은 1986년에 미국수입시장에서의 1위 품목이 31개를 보였으나 NAFTA가 체결된 1994년에는 23개로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20개로 더욱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에는 24개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 현재에는 19개 품목으로 분석 대상 기간 중 가장 낮은 품목 수를 보였다.

중국은 미국시장에서의 1위 품목의 수가 분석 대상국가들 중 1986년 이후 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이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에는 1위 품목이 한국과 동일한 31개 품목이었고, 1~5위 품목의 경우에는 중국이 더 낮은 품목 수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현재에는 1위 품목이 279개를 보였고, 1~5위 품목은 702개를 보여 각각 800% 및 331%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분석대상 국가들 중에서 1위 품목의 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에는 미국시장에서의 1위 품목 수가 213개로 캐나다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국가들 보다 높은 품목 수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4년에는 1986년에 비해 51% 감소한 104개를 보였다. 그 결과, 일본의 1위 품목 수는 캐나다 및 중국에 비해 낮은 품목 수를 보이고 멕시코와도 격차가 줄어들어 3개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 미국시장에서 FTA 체결국 및 한·중·일의 1위 품목 개수

	1986	1990	1994	1996	2000	2004
캐나다	222 (594)	313 (721)	353 (770)	393 (810)	375 (787)	325 (769)
멕시코	45 (231)	70 (369)	78 (407)	90 (486)	115 (530)	101 (491)
싱가포르	2 (33)	4 (40)	1 (30)	0 (23)	3 (19)	3 (25)
한국	31 (182)	28 (169)	23 (197)	20 (171)	24 (220)	19 (193)
중국	31 (163)	49 (218)	114 (394)	143 (409)	189 (515)	279 (702)
일본	213 (595)	208 (623)	197 (627)	165 (582)	147 (550)	104 (487)

주: ()안은 1~5위 품목의 개수임.

자료: UN Comtrade [online]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3. 시사점

본고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싱가포르와 FTA 비체결국이면서 미국수입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관세율 격차 및 최근의 무역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미국수입시장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FTA체결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 외에도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1위 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FTA 체결국 및 비체결국에게 부과되는 관세율 구조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시장에서의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에 부과되는 관세율 격차로 인하여 FTA 체결국이 비체결국가들 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출성과가 중국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미 FTA 체결은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여건을 역외국가들보다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간 관세인하가 상대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즉 품목의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혜 원산지규정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FTA 협정들을 살펴보면 무관세화가 많이 이루어진 협정일수록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인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NAFTA는 원산지 인정기준이 엄격한 대표적 사례이다. 예를 들면, NAFTA는 섬유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섬유사 산지주의(Yarn-forward Rule)를 채택하고 있으나 북미지역이 공급부족을 겪는 직물인 편직내의류, 브래지어, 셔츠는 섬유사 산지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북미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섬유원료산 직물에는 원산지 인정기준이 더욱 엄격한 섬유원료 산지주의(Fiber-forward Rule)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회원국들간의 교역을 정상수준보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⁴⁾

물론 한국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므로 역외국제품이 미국을 우회하여 한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수출시장을 목표로 하는 제3국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필요성도 있다. 결국 품목별로 전략적 맞춤형 원산지 인정기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⁵⁾

참고문헌

방호경.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4.

Estevadeordal, Antoni & Kati Suominen, *Rules of Origin: A World Map and Trade Effects*. INRA-DELTA. Paris.

UN Comtrade Database [online].

4) Estevadeordal 등 (2003).

5) NAFTA에서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에게 원산지 인정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역외국들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이다.